

제1강 세계의 모든 얼굴 I: 회화, 얼굴을 드러내는 작업

(1교시) J_jwLee03_040322_01

◆ '세계'란 무엇인가

세계라는 말은 크게 보면 자연세계까지 모두 포괄하는 궁극적인 '전체'를 뜻하기도 하고, 작게 보면 '어떤 영역'을 뜻하기도 한다.

세계라는 말을 크게 사용하는 한에서 인류는 현실세계, 초월세계, 미시세계, 가상세계 등의 네 가지 세계를 경험해왔다.

◆ 지각 조건과 일상 언어

사물에 대한 인식은 인식주체의 조건에 맞물려 있다. 우리가 '세계'라 할 때 그 세계는 인간이라는 인식주체의 조건에 들어와 있는 세계이다.

가장 일차적이고 원초적인 세계는 현상세계(현실세계)이다. 현상세계는 우리 신체의 지각 방식과 그 결과로서 형성된 일상 언어로 구성되는 세계이다.

모든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회화 역시 현상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. 상식은 현상세계와 맞물려 형성되는 지식이다. 과학을 포함한 존재론적 사유들은 현상세계를 넘어 다른 세계 =차원을 발견하고자 한다. 마찬가지로 현상세계의 재현에서 탈피해 현상 세계 너머의 다른 세계를 그리려고 하는 회화도 존재론적 행위에 속한다.

◆ 세계의 얼굴

일정한 인식 조건들, 정합적인 場을 형성하는 인식 조건들에 드러나는 세계는 世界(World)의 한 얼굴이다. 현상세계는 우리의 신체와 일상 언어라는 조건에 맞물려 드러나는 얼굴 =세계(world)이다. 그래서 미시 물리학의 세계, 천문학의 세계, 범죄자들의 세계 등 무수한 세계들(세계의 얼굴들)을 이야기할 수 있다.

◆ 얼굴=세계와 面の 개념

얼굴=세계의 개념은 面の 개념으로 포착될 수도 있다.

19세기 생물학자들이 창안해낸 '조직면(조직화의 도안=plan d'organisation)' 개념은 일정한 정합적 場을 의미하며 이는 건축에서의 面の 개념과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다.

과학, 경제학, 물리학 등의 세계는 하나의 인식주체를 가지고, 일정한 인식 조건에 나타나는 면을 집요하게 탐구한다. 회화가 흥미로운 점은, 회화는 이들과 다르게 면 자체를 끝없이 새롭게 재발견한다는 것이다.

◆ 라이프니츠의 가능세계론(可能世界論)



라이프니츠 (1646~1716)

* **모나드(monade)**론: 단자론. 모든 존재의 기본으로서의 실체, 무수한 개별적 개체들의 각자 고유한 형상을 모나드라 한다. 이들 모나드는 각기 독립되어 있다. 이것은 오늘날 DNA의 개념과 흡사하다.

라이프니츠의 **가능세계**는 신에 의해 설계된, ‘공가능성(compossibility)’을 근거로 하는 세계 하나하나이다. 지금의 이 세계는 바로 최선의 세계이다.

이러한 라이프니츠의 초월적, 신학적 구도를 걷어내고 내재적 구도로 바꿔 본다면, 세계는 유일한 하나이며 **가능세계란 인식 주체의 조건에 맞물려 드러나는 세계들**이다. 때문에 여기에서 ‘가능성’이란 **잠재성**의 다른 이름이 된다.

세계(World)는 인식 주체와 상관적으로 드러나는 무수한 얼굴들=면들=(가능)세계들의 무한히 입체적인 총체이다.

◆ **회화, 얼굴을 드러내는 작업**

현대 회화의 핵심은 더 이상 **대상의 재현이 아니라 재현의 파기**, 내면과 정신의 표현에 있다. 그러나 재현/비재현의 단순한 이분법으로 전통 회화와 현대 회화를 나누기는 쉽지 않다.

상상의 세계는 인간 존재의 사유공간/뇌와 맞물려 드러나는 가능세계이다. 내면 역시 마찬가지이다. 현대 회화가 내면을 표현하는 방향으로 들어섰다 해도 인간의 내면이 하나의 얼굴, 단면인 한 현대 회화 역시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행위인 것이다. 즉 **회화는 세계의 무한한 얼굴들을 드러내는 작업, 존재의 빛을 드러내는 작업**이라 할 수 있다.